



1. 이안 이스트우드 (Ian eastwood)



이안 이스트우드 (Ian eastwood)는 1993년 4월 13일 미국 시카고 출신의 댄서, 안무가, 감독이다. 얼반댄스 장르의 안무가로 지금 현재 The Young Lions 크루 소속의 안무가 입니다.

이안 이스트 우드 (Ian eastwood)의 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얼반 장르의 댄서이다 보니 감정과 춤선이 물 후르듯 연결되어 진다는 점인데, 댄스만 보고도 가사가 그려질 정도로 표현력이 뛰어난 댄서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댄서 입니다.

미국내에서는 준수한 외모로 인해 아이돌 급으로 인기가 많은 안무가로 국내에서는 샤이니 태민의 솔로곡 '괴도 (Danger)'의 안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2. 윌리엄 아담스 (Willdabeast Adams)



윌리엄 아담스 (Willdabeast Adams) 1988년 9월 6일 미국 인디애나 출신의 안무가이다.

윌리엄 아담스 (Willdabeast Adams)는 처음으로 "Destined 2 Be"라는 크루의 소속으로 인디애나 블랙 엑스포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했다.

항상 유쾌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로 유명한 그는 Usher, T-pain, The Black Eyed Peas, 5th Harmony, Demi Lovato, Jason Derulo, Modonna 등의 댄서로 공연 및 방송활동에 활동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댄서로 활동을 해오던 그는 서서히 안무가로 꿈을 꾸게 되고 T-pain, DJ Tiesto, So You Think You Can Dance 그리고 Nike 등에서 안무가로 참여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13년 댄스 컴퍼니 immaBeast를 설립하여 댄서, 안무가를 꿈꾸는 많은 이들을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는 윌리엄 아담스 (Willdabeast Adams).

한국에서는 최근 레드벨벳의 Dum Dum의 안무를 만들어 많은 이들이 알기 시작했다.